

희망을 이야기 합시다 *Let's Talk About Hope*

하박국 (Habakkuk) 3:17-18

그리스 신화(Greek Mythology)에 나오는 판도라 상자(Pandora's box) 이야기는 서양 사람들이 희망에 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곤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판도라는 저 하늘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여자입니다. 그녀는 각 신들로부터 받은 모든 선물을 다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의 여인입니다.

When the Western people talk about 'hope', they frequently use quotations about Pandora's Box from Greek mythology. According to the Greek mythology, Pandora is the first woman to make it to heaven. She is the ideal of beauty and had received many gifts from each of the gods.

이 여인은 신들에게 받은 상자 하나를 가지고 이 지상으로 보내져 에피메테우스(Epimetheus)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신들은 절대로 그 상자를 열지 말라고 판도라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판도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상자를 열어 보았습니다.

She was sent from the heaven with one box that she was given by the gods and became a wife of Epimetheus. The Gods forbade Pandora from opening the box. However, prompted by her curiosity, Pandora opened the box.

그 때 상자 속에서 질병, 고통, 슬픔, 재난, 가난, 전쟁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라서 재빨리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지상 곳곳으로 흩어져 버리고 상자 속에는 희망만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질병, 고통, 슬픔, 재난, 가난, 전쟁 이런 것들로 넘쳐나고 희망은 찾으려 해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At that time, such things as disease, suffering, sorrow, disaster, poor, and war poured out from the box. She was surprised and closed the box rapidly. But the harmful contents were already scattered in all directions and only hope was locked up in the box. So that's why this world is filled with disease, suffering, sorrow, disaster, poor, and war, and it is hard to find hope.

우리 인간사에 희망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질병, 전쟁, 가난, 재난, 각종 사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희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This myth tells us that we cannot find hope easily in this world. That's right. Tragedies such as disease, suffering, sorrow, disaster, poor and accidents are more than we can bear. However, the hardest thing that we can bear is losing our hope.

희망만 있다면 다른 것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면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If we have hope, we can bear anything. If we lose our hope, we are unable to bear them any longer. So we need to talk about hope.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 한 토막입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part of Habakkuk's confession.

17 절에 “무화과나무는 싹도 내지 않고 포도 덩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올리브나무의 소출은 실망뿐이고 논밭의 곡식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목장의 양 떼들은 모두 다 사라졌고 외양간에는 소 한 마리 남아 있지 않습니다.”

Verse 17 says,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alls.”

지금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있어야 할 작물들이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가축이 없습니다. 농부에게 절망 바로 그 자체입니다.

His condition is a desperate state of affairs. The fig tree does not bu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and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alls. It is hopelessness itself for the farmer.

한숨과 절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He has come to a place where only the sounds of sigh and despair are sung. Nevertheless Habakkuk is singing a song of hope.

고전 13:13 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 Corinthians 13:13 says, “And now these three remain: faith, hope and love. But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 가지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있어야 하고,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se are three things that remain in this world and what Christians must have. These three things will always remain, no matter what. This means that faith must remain even when we cannot believe in something, hope must remain even when there is no hope, and love must remain even when we cannot love each other.

지금 본문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과수원에 열매가 달리지 않아 소출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희망 때문이죠.

Habakkuk in today's text is in the same situation. He is singing now even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at is because he has a hope.

밭에 거둬들일 작물이 없는데도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희망 때문이죠.

He is singing now even though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at is because he has a hope.

우리에 있어야 할 가축이 없는데도 노래를 부릅니다. 희망 때문입니다.

He is singing now even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alls. That is because he has a hope.

제인 구달(Jane Goodall)이라는 분이 쓴 “희망의 이유(Reason for Hop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여자 분은 동물 행동학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러나 생물학 분야보다도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다양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There is a book written by Jane Goodall titled, “Reason for Hope.” She is a world renowned expert animal behaviorist. However, she received praise from many people because she works very hard to solve modern problems rather than just in the field of biology.

그녀는 이 “희망의 이유”라는 책에서 환경 파괴, 불평등, 대량학살, 전쟁, 테러, 천재지변 등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According to her book “Reason for Hope”, she strongly insists that we can still have hope even though we are living in things like environmental disruption, inequality, genocide, war, terror, and natural disasters.

그러면서 본인이 연구한 내용을 기초로 우리가 아직도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She gave us four reasons based on her study that we still can talk about hope.

첫째, 인간의 명석한 두뇌가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First, there is hope because man has a clear head.

둘째, 적절한 도움을 주면 되살아나는 자연의 놀라운 회복력 때문에 희망이 있다.

Second, there is hope because of the amazing recuperative power of nature that can be reviving to life when we give suitable aid.

셋째, 전 세계 젊은이들의 새로운 시각과 열정, 그리고 에너지 때문에 희망이 있다.

Third, there is hope because of new vision, passion, and energy of young people in worldwide.

그리고 넷째, 절망적 상황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서 희망이 있다.

And forth, there is hope because we have those who have overcome their desperate state of affairs.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늘 빛을 좋아하고, 밝은 곳을 보고, 빛을 노래합니다.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 사고를 갖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여명의 빛줄기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We Christians are children of light. So we always seek light, look for the bright place and sing the light. We Christians are always positive and active. We Christians need to have the ability

to see the silver lining in the darkest clouds.

오늘 본문 18 절에 “그렇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 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In verse 18 it says,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그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He is telling us the reason why he can talk about hope in his desperate state. The reason is because of the LORD God. Because of the LORD God, we can talk about hope.

역대하 20 장을 보면 남 왕국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공격해 들어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다로서는 저들을 상대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When you look at the book of Second Chronicles, the Moabites and Ammonites with some of the Meunites came to make war on Jehoshaphat. At that time, Judah has no power to face this vast army. It was another desperate state of affairs.

그때 여호사밧 왕이 먼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 명을 따라 유다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Alarmed, Jehoshaphat resolved to inquire of the LORD, and he proclaimed a fast for all of Judah. Then Jehoshaphat stood up in the assembly of Judah and Jerusalem at the temple of the LORD in the front of the new courtyard.

12 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대신 그들에게 벌을 내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엄청난 군대에 대항하기에는 우리의 힘이 너무도 약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In verse 12, Jehoshaphat said “O our God, will you not judge them? For we have no power to face this vast army that is attacking us. We do not know what to do, but our eyes are upon you.”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15 절을 보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아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여호사밧 왕이시여, 똑똑히 들으시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저 대군을 보고 겁을 먹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In verse 15, God listened to their prayers and t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Jahaziel son of Zechariah and he said, “Listen, King Jehoshaphat and all who live in Judah and Jerusalem! This is what the LORD says to you: ‘Do not be afraid or discouraged because of this vast army. For the battle is not yours, but God's.’”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그 말씀을 받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크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찾은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로부터 임하는 희망을 찾게 된 것입니다.

Jehoshaphat bowed with his face to the ground and praised the LORD, the God of Israel, with a very loud voice. They found hope in their desperate state. When we pray to God, we can find hope from the Spirit of the LORD.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The only way to find hope is in prayer. When we pray to God, even though we are in trouble, Jesus gives us new hope in praye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 상황이 여러분 앞으로 밀려옵니까?
Beloved sisters and brothers! Are you facing a desperate state?

기도하십시오. 기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Pray for it. You can find new hope when you pray.

한 가닥 희망마저 희미해져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Does your future look gray? Come to church and pray to God.

주님께서 기도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희망이 다시 굳건해 질 것입니다.
Jesus will meet you when you pray to Him and your hope will be strong and steady again through your meeting with Him.

저는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웨덴의 가스펠 가수 레나 마리아(Lena Maria)의 찬양 My life 라는 곡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1968년 두 팔도 없이 한 쪽 다리만 온전한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찬양으로 그의 고난을 딛고 살아가는 감동적인 삶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While I was preparing today's sermon, I was listening to the gospel music album My Life by Lena Maria. She was born in 1968 in Stockholm, Sweden without arms and with only one healthy leg. She spread the Word of God worldwide with her song and by showing her impressive life.

그녀의 이야기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Footnotes)”라는 책을 보면,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장애를 장애로 여긴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장애가 믿음과 더불어 오늘날 자신을 있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희망을 찾게 되면 그 희망은 열악한 우리의 현실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In her book titled “Footnotes”, she confesses that she never thought about her handicap as an obstacle. Rather, she says that the obstacle made her stronger and helped her have faith. When we find hope in Jesus Christ, that hope can change our poor reality into blessings. So that's why we need to talk about hope in the LORD Jesus Christ.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 대각성회를 가졌습니다.
Beloved sisters and brothers! We had revival services last week.

그 부흥회를 통해 우리는 우리 믿음생활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처럼, 부흥회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Through these revival services, we found hope in a Christian life. Through the revival services, we met God who works within our lives. We believe that God, who is touching our heart and making us realize His love during the revival services, is always with us just like Holy Spirit in the early church 2,000 years ago.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더라도 희망을 이야기하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는 성숙된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I pray that we need to talk about hope and remember how God loves us, even though we are living in these difficult times.